

“내실 다져 지역경제 든든한 버팀목 되겠다”

●정현택 제25대 목포상공회의소 회장 취임

46년간 김 산업 외길...정기적 나눔 실천
“700여개 회원사 중심 권익 신장 힘쓸 것”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목포상공회의소 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고 내실을 다져 명실상부한 명성과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목포 상공회의소는 6일 “최근 목포신안비치호텔에서 정현택 제25대 목포상공회의소 회장의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식에는 박홍률 목포시장, 박창환 전남도 정무부지사, 김원이 국회의원을 비롯한 기관·단체장 등이 참여했다.

정현택 회장은 46년 김 산업 외길을 달려 대창조선김을 50여개국에 연간 5천만달러 이상 수출해 세계적 명성을 떨치고 있고 어려운 이웃에게 정기적으로 나눔 활동도 실천하고 있다.

특히 정 회장은 개인과 기업이 각각 1억원 이

상 고액기부자 클럽에 가입한 명실상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사업가로 목포 공생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꾸준히 나눔을 펼치는 기부 천사로 귀감이 되고 있다.

정 회장은 취임사에서 “사실 초반에 목포상공회의소 의원으로 참여해 28년을 함께 해왔다”며 “25대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는 첫 출발점에 서게 되니 감회가 새롭고 어깨가 무겁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정 회장은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해 온 역대 회장들의 헌신과 봉사를 떠올리며 업적에 누가 되지 않고, 지역 상공인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AI, 기후변화, 인구절벽 등 새로운 도



정현택(가운데) 제25대 목포상공회의소 회장 취임식이 6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열렸다. 정 신임 회장이 취임식에서 축하 꽃다발을 받은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전과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성장과 이윤을 추구했던 기업의 과거 역할에서 벗어나 사회문제 해결에 기업과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회원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회장은 “상의 존립의 근간은 700여

회원사. 모든 사업들이 회원사 중심으로 되도록 하겠다”며 “회원의 권익 신장 등 상의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취임식에 앞서 지난 6년간 목포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한 이한철 회장의 이임식도 진행됐다. /목포=정해선기자

정은서 동강대 간호학과 교수 ‘국민보건 향상’ 복지부장관상



동강대학교는 “최근 서울에서 열린 ‘제3회 대한간호협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정은서 간호학과 교수가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 공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정 교수는 2021-2023년 광주시 간호사회 대의원으로 안전한 간호에 필요한 간호법 제정과 간호사 위상 제고 등을 위해 힘써왔다.

또 정 교수는 동강대 간호학과 학과장을 맡아 한국간호교육평가원으로부터 간호학 학사학위 프로그램에 대한 5년 인증 획득을 이끌었다.

/김다이기자



화순경찰, 박정보 전남청장과 현장 간담회

화순경찰서는 6일 “전남 박정보 전남경찰청장이 화순을 찾아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박웅 화순경찰서장의 업무보고와 직원들의 질문·건의사항 청취 및 답변하는 시간이 이뤄졌다.

이어 협력단체장 간담회에는 경찰발전협의회, 안보자문협의회 등 화순지역 10개 협력단체장들이 참석해 참여치안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치안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박정보 전남경찰청장은 “정성치안은 당당한 경찰이 되는 것과 주민들의 신뢰를 받기 위한”이라며 “작은 것부터 지금 우리가 하는 일 모두가 정성치안이니 자신감을 갖고 더욱 열심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화순=이병철기자



담양경찰, 선도심사 신규위원 간담회

담양경찰서는 “최근 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 신규위원 위촉과 간담회를 열어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맞춤형 선도심사의 첫발을 내디뎠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위촉한 신규위원은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지원 활동을 지속해 왔던 전문가들을 선도·생활지원·법률분과로 편성, 참석자 간담회를 통해 청소년 선도의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논의했다.

권현오 담양경찰서장은 “지역사회 청소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기구로 더욱 활성화해 청소년에게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선도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기자



신안경찰, 영농회장 대상 치안설명회

신안경찰서는 “최근 이을신 서장이 신안농협을 방문해 교통사고와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치안설명회를 가졌다”고 6일 밝혔다.

설명회는 신안농협 4개면 영농회장 회의에 앞서 섬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와 주민에게 친절하게 다가가는 신안 경찰이 되고자 추진했다.

이을신 신안경찰서장은 “염전·양식장 종사자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영농회장들도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안=양홍기자



일곡88정형외과의원, 북구새마을회에 후원금 기탁

(사)광주북구새마을회(회장 이문영)는 “일곡88정형외과의원(원장 김병준)이 기부문화 장려와 확산을 위해 학생돌기 후원금 200만원을 기탁했다”고 6일 밝혔다.

후원금은 북구새마을회에서 운영중인 교복 나눔장터를 통해 북구 관내 학생들을 위한 사업

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병준 일곡88정형외과의원의장은 “경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주변 학생들을 위한 나눔에 참여하게 됐다”며 “이웃을 사랑하는 나눔 문화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인재영기자



전남교육청-한국문화예술위원회 ‘독서인문교육’ 협약

전남교육청은 6일 “전남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독서인문교육 격차 해소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대중 도교육감과 정병국 한국문화예술위원회장은 원도심·농어촌 학생을 대상으로 한 독서인문 문화격차 해소 지원,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독서인문교육 협력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대한민국 문화예술인문교육의 거점 기관으로서 ▲원도심 및 농어촌학교의 독서인문교육주간 지원 ▲상주 작가 학교도서관, 학교 등 교육기관 순회 지원 ▲교육지원청 인문영재 교육 연계 운영 등으로 인문

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정병국 위원장은 “독서인문교육은 아이들의 행복감, 소속감, 자아 존중감을 높이고 안정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라며 “인문정신문화 사업의 전담 기관이자 수년간 운영해 온 문학 사업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어린이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중 도교육감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은 지역 중심 교육 생태계 속에서 아이들이 지역적 특수성과 세계적 보편성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역량을 갖춘 미래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다이기자



구례경찰, 개학기 스쿨존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구례경찰서는 “개학을 맞아 구례초등학교에서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구례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SPO), 북초등학교 교직원, 학생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Zero’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6일 밝혔다.

캠페인은 어린이 교통사고 없는 학교 만들기

공감대 형성을 마련했으며,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홍보 물품을 나눠주고 피켓과 현수막을 활용해 교통 안전을 당부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유도연 구례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며 다양한 시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구례=임종길기자

농관원 여수사무소-여수교육청 ‘학교급식 안전’ 협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여수사무소는 “최근 여수교육지원청과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안전관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미래 세대의 기초 건강 증진을 위해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품질·안전관리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수요자 중심의 협약으로 두 기관의 상호 연계와 협력 사항 등이 담겼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영양사·조리사와 같은 학교급식 관계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교육청의 부정유통 정보 제공 협력을 통한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대한 집중 관리 등 협조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김선중 사무소장은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식재료에 대한 전문적인 점검과 지속적인 농식품 안전관리 등 상호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서금열 교육장은 “지금까지 기관별로 추진해 온 사항이 이번 협약을 통해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협약을 계기로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건강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여수=김진선기자

광양경제청, 상반기 첫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광양경제청)은 “최근 상황실에서 2024년 제1회 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투자·개발 분야 주요 시책과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광양경제청 정책자문위원회는 중장기 발전 목표와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자문 기구로, 지역개발·전략산업·관광·항만물류 등 단계 전문가 20인으로 구성됐다.

회의에서는 광양경제청의 올해 주요 업무 계획과 정책과제에 대해 자문하고 개청 20주년을 맞아 광양만권 경쟁력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위원들은 지난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1조천억원의 투자유치를 실현한 성과에 대해 격려하고 앞으로도 미래성장산업 유지와 입주



기업 지원에 앞장설 것을 당부했다.

송상락 광양경제청장은 “광양만권에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유치하고 기업의 투자 수요에 대응해 산업단지의 차질 없는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양홍기자

전남소방-전남농협 ‘축사시설 안전관리 구축’ 맞손

전남소방본부는 “최근 농협전남본부와 ‘더 안전한 으뜸 전남’ 실현을 위해 축사시설 안전관리 체계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협약식은 전남본부 회의실에서 열렸으며 홍영근 전남소방본부장, 박종택 농협전남본부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화재안전 컨설팅 ▲축사 개선사업·신축(허가) 시 시설물 원스톱 안전지도 지원 ▲축사 전기 안전점검·시설현장 정보 공유 ▲농협 사료 운송차 화재 안전 교육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정현 전남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은 “협약



을 통해 양 기관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더 안전한 으뜸 전남 실현을 위해 화재 취약 시설에 더욱 촘촘한 화재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양시원기자